

중국의 2025년 경제·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과 평가

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 김나연 전문원(nykim0806@keei.re.kr)

- ▶ 중국 정부는 2025년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GDP 증가율 약 5%, 소비자물가지수(CPI) 2% 상승, 신규 고용 1,200만 명, 재정적자율 GDP 대비 약 4.0% 등의 경제 목표를 제시함.
- ▶ 그러나 중국의 2025년 GDP 증가율 달성에는 대내외적 위험요인으로 2024년보다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. 정부는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내수 진작, 재정지출 확대, 유동성 확대,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임.
- ▶ 또한, 2025년 에너지부문 목표로 에너지원단위 약 3% 감축, 탄소중립·탄소피크 정책 강화, 기후변화 대응 등의 내용을 제시함. 그러나 양회에서는 금년도 탄소배출집약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, 이는 지난 4년간 감축률이 8.6%에 불과해서 14차 5개년 계획(2021~2025년) 목표인 18.0%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- ▶ 탄소피크·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완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정부는 23개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음.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는 글로벌 환경·기후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 및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힘.

1. 중국의 2025년 경제정책 추진 방향

■ 2025년 양회에서 GDP 증가율 목표 2024년과 동일한 약 5% 제시¹⁾

○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(兩會)가 2025년 3월 4일~11일까지 8일간 개최됨.

※ 양회는 매년 3월 정례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(이하 '전인대')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(이하 '정협')를 지칭함. 국회 격인 '전인대'는 예산 통과, 법안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, 각 쑤(직할시, 자치구), 홍콩, 마카오 등의 대표로 이뤄짐. '정협'은 공산당 등 각 단체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전달함. 양회에서 중국의 향후 정책 방향이 결정됨.

–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양회에서 2025년 GDP 증가율, 내수 진작, 과학기술 혁신, 개방확대, 민생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함.

○ 중국은 2025년 GDP 증가율 목표로 5%를 제시하였음.²⁾

– 2035년에 GDP를 2020년보다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, 이를 달성 하려면 2021~2035년간 연평균 GDP 증가율이 약 4.7%, 2021~2025년에는 약 5%를 유지해야 함.³⁾

–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~202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.7%로 기대했던 5%보다 낮았음. 이에 2035년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 목표를 약 5%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.

“2025년 양회
정부업무보고에서
중국은 GDP
증가율 목표 약 5%
제시”

1) 중국 2025년 양회에서 3월 5일에 “政府工作報告” 발표

2) 中國上市公司網, 2025.3.10.

3) 經濟觀察報 2023.5.23.

〈 GDP 증가율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(2008~2025년) 〉

(단위 : %)



주 : 2025년(E)은 목표치

자료 : KPMG China(2025.3.), 2025年兩會要點解讀

- 중국은 이러한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내수 진작, 재정지출 확대, 유동성 확대, 과학기술 혁신 등을 제시했음.

▣ 내수 진작

- 중국은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GDP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수 진작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함.

“경제성장 목표 달성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내수 진작을 설정, 이를 위해 이구환신 확대 정책 등 시행”

- 이를 위해 ①국민소득 증대, ②신규 고용과 실업률 목표 유지, ③사회보장서비스 강화, ④이구환신(以舊換新)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
- (국민소득 증대) 2024년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명목가치로 5.3% 증가하였는데, 이 중 56.5%를 차지하는 임금소득 증가율은 1.3%p 감소함.
 -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국민 소비성향이 코로나19 시기 보다 현저히 낮은 68.3%(전년과 동일) 기록
 - 이에 국민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이 정상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
- (신규 고용과 실업률 목표 유지) 취업 안정과 확대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데, 2025년 도시지역의 신규 취업 목표를 1,200만 명 이상으로 제시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함. 도시 실업률도 약 5.5%로 낮출 방침
- (사회보장서비스 강화) 노인 돌봄, 의료, 보육 등 핵심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
 - 구체적으로 일반노인 돌봄 지원금 최저 기준을 20위안 인상하고, 출산장려 정책을 제정하고 육아 보조금을 지급
- (이구환신 확대)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을 확대하여 소비를 진작시킬 방침

※ 이구환신(以舊換新)은 소비자들이 가전, 자동차, 전자제품, 자전거 등의 노후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소비 정책임.

- 2024년에는 초장기 특별국채 지원금 1,500억 위안과 지방 자금 약 200억 위안을 투입하여 소매판매액이 몇 배에 달하는 승수효과(Multiplier Effect) 획득
- 2025년에는 전년보다 2배 증가한 초장기 특별국채 지원금 3,000억 위안을 배정하여 이구환신 정책을 지원하고, 이를 통해 소매판매액을 전년대비 1.5%p 증가 시킴.
- 또한, 정책시행 시기를 앞당겨 연초에 이미 1차 지원금 810억 위안을 지급하였으며 지원 대상도 12종으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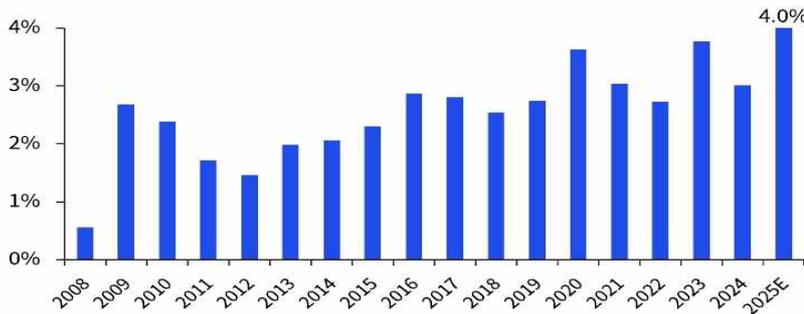
■ 확대 재정 및 통화 정책 추진

○ 중국은 재정정책 부분에서 ‘보다’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함.

- 2025년 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를 전년대비 1%p 증가한 약 4%로 제시함. 적자규모는 5조 6,600억 위안으로 역대 최대 기록
- 재정자금을 노인 돌봄, 의료, 육아 등의 보조금, 과학기술 혁신 강화, 산업혁신 지원 강화, 정부투자 확대 등에 활용⁴⁾
- 국채·지방채 규모와 발행 속도를 높여서 2025년 채권 순발행 규모를 전년대비 2조 9천억 위안 증가시켜 사상 최고치 도달
- 2025년 1~2월 국채·지방채 발행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17% 증가
-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물가지수(CPI) 목표를 3% 이하인 약 2%로 하향 조정
- 이는 물가규제 완화보다는 유효수요 부족과 물가하락 압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임.

“GDP 증가율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지출 증대 및 통화 유연성 확대”

〈 중국 GDP 대비 재정적자율(2008~2025년) 〉



주 : 1) 2025년(E)은 목표치
 2) 재정적자율 = (국채+지방채(일반))/명목 GDP
 자료 : KPMG China(2025.3.), 2025年兩會要點解讀

○ 또한, 중국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4년간 유지해온 ‘온건’ 통화정책에서 ‘적정 수준의 완화’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응능력을 향상시킴.

4) 新浪財經, 2025.3.5.

- 2025년에 '보다'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대규모 자금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조정·추진
- 이에 '충분한 유동성 유지'를 강조하여 기존의 '합리적 유동성'보다 완화된 정책을 시행
- 중국인민은행(중앙은행)은 2025년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채 순매수, 환매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할 방침

▣ 과학기술 혁신

-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국에 대한 각종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강조함.
 - 이를 위해 인공지능(AI), 바이오기술, 신재생에너지, 신소재 등 주요 부문에서 혁신적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을 육성
 - 지역 특색에 맞는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재차 강조하고, 비즈니스 항공, 저고도 경제(Low-Altitude Economy), 심해 과학기술과 같은 신흥산업과 바이오생산, 양자 과학기술, 신체 기반 인공지능(Embodied AI), 6G 등의 미래산업 육성
 - ※ 저고도 경제는 글로벌 신산업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(UAM)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1,000m 영공 내 비행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, UAM, 물류, 관광, 소방 등의 응용 부문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생태계를 의미함.⁵⁾
 - 또한,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키는 AI+를 더욱 강조
 - 스마트 커넥티드카(Intelligent Connected Vehicle, ICV), 인공지능 스마트폰, 컴퓨터, 스마트 로봇 등 분야가 AI+의 주요 잠재 산업으로 될 전망

“GDP 증가율 목표 달성 위해 AI, 바이오기술, 신재생에너지, 신소재 등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강조”

2. 중국의 2025년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⁶⁾

▣ 에너지원단위: 전년도와 유사한 약 3% 감축 제시

- 중국은 2025년 에너지원단위 목표로 전년도(2.5% 감축)와 유사한 약 3% 감축을 목표로 설정
 - 2025년에 에너지원단위 3%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면, 14차 5개년 계획(2021~2025년)의 에너지원단위 감축 목표 13.5%를 예정대로 달성하게 될 것임.
 -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‘2024년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공보’에 따르면, 2024년 에너지원단위는 전년 대비 3.8% 감축⁷⁾

5) 최지원·최재희, “중국의 저공 경제(Low-Altitude Economy) 육성 현황 및 시사점”, 「세계경제 포커스」, Vol.7, No.29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24.7.18.

6) 中國能源網, 2025.3.5.

7) 知識分子, 2025.3.17.

< 중국의 에너지소비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 목표(2006~2025년) >

구분	에너지소비 규제		탄소배출 규제
	에너지원단위	에너지 총 소비량	
11.5 계획 (2006~2010년)	20% 감축	-	-
12.5 계획 (2011~2015년)	16% 감축	-	탄소배출집약도 17% 감축
13.5 계획 (2016~2020년)	15% 감축	50억tce 이내	탄소배출집약도 18% 감축
14.5 계획 (2021~2025년)	13.5% 감축	적정 수준 이내	탄소배출집약도 18% 감축

자료 : 11차 5개년 계획~14차 5개년 계획 내용 정리

“중국 2025년
에너지원단위 목표
전년도와 유사한
약 3% 감축 제시”

- 한편, 중국 정부는 현재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‘에너지원단위와 에너지 총 소비량 규제’(이하 ‘에너지소비 규제’)를 ‘탄소배출집약도와 탄소 총 배출량 규제’(이하 ‘탄소배출 규제’)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음.
 - ‘에너지원단위와 에너지 총 소비량 규제’를 시행하여 에너지믹스를 개선하고 소비효율을 제고하였으나, 규제대상 지표에서 청정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구분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을 저해함.
 - 또한, 직접적 규제대상이 탄소배출량이 아니어서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기에 전환을 추진 중임.⁸⁾
 -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신규 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와 원료용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제외하면서 ‘에너지소비 규제’를 ‘탄소배출 규제’로 전환한다고 명시함.⁹⁾
 - 2024년 ‘녹색전력증서(Green Electricity Certificate, GEC)와 에너지절약·배출량감축 정책 연계로 비화석에너지 소비 촉진에 관한 통지’를 통해 비화석 에너지를 ‘에너지소비 규제’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함. 즉, 규제대상 지표에서 청정 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구분함.
 - 2024년 8월 ‘탄소배출 규제 제도 구축 가속화 방안’을 통해 처음으로 구축 방안을 공개하였으며, 중국의 에너지규제 정책을 ‘에너지소비 규제’에서 ‘탄소배출 규제’로 전환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함.

■ 탄소피크·탄소중립 : 탈탄소 정책 강화

- 중국 정부는 202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‘풍력·태양광·수소·저장 통합 건설 확대’, ‘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업종을 8대 온실가스다배출 업종으로 확대’ 등의 23개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탄소피크·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할 방침

8) 인사이트, 제25-3호, 2025.2.17., pp.3~9., 知識分子, 2025.3.17.

9) 인사이트, 제22-6호, 2022.3.28., pp.3~10.

“정부업무보고에서
23개 관련 정책
제시로
탄소피크·탄소중립
이행 강화”

- **(‘탄소배출 규제’로 전환)** ‘탄소배출 규제’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도록 명시
 - 관련 규제가 정립되면 온실가스다배출 기업/산업은 산업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.
- **(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업종 확대)** ‘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’을 기존 발전 업계에서 8대 온실가스다배출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
 - 중국 생태환경부는 철강, 시멘트, 알루미늄 등 3개 업종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정식 편입한다고 밝힘(2025.3.26.).¹⁰⁾
 - 2024년에는 실제 배출량과 동일한 배출권이 지급되었으며, 2025~2026년에는 탄소배출집약도에 따라 탄소배출권이 배분되므로 업계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겠지만, 일부 기업에는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음.¹¹⁾
 - 귀타이권인증권은 알루미늄 업계의 탄소배출권 부족률이 0.5% 미만이라면 당해 연도의 탄소배출권 부족분은 34만 톤이라며,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100위안을 기준으로 알루미늄업계에 연간 0.34억 위안(약 68억 원, 2025.4.8.일 기준 환율)의 탄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함.
 - 관련 기업 및 산업은 탄소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, 설비 현대화, 탄소발자국 측정 기준 마련 등의 대응책 마련 필요
- **(탄소배출량 집계 능력 제고)** 탄소배출량 통계 수집 및 정산 능력을 제고하고, 탄소발자국 관리 대상을 의류, 전자 등과 같은 소비재로 확대하며,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며, 이를 통해 외국의 녹색 무역장벽에 대응
 - 중국 생태환경부는 ‘온실가스 제품 탄소발자국(Product Carbon Footprint, PCF) 계량화 가이드’를 통해 2027년까지 전력, 철강, 신에너지차(New Energy Vehicle, NEV) 등 200개 주요 PCF의 정산 규칙 표준을 제정한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.
- **(탄소피크 시범지역 시행)** 탄소피크 2차 시범지역 프로젝트 시행
 -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는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‘국가 탄소피크 시범지역 구축 방안’을 발표함(2023.11.6.).¹²⁾
 - 이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‘2030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(2021.10.27.)’에서 도시 및 단지 100개를 선정하여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시범지역을 구축한다고 명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였음.

“탄소배출량 집계
능력 제고 및
탄소피크 2차
시범지역 정책
시행”

10) 中國能源網, 2025.3.27.

11) 新浪財經, 2025.4.3.

12) 인사이트, 제23-22호, 2023.11.20., pp.43~44.

- NDRC 방안에서 1차 시범지역으로 15개 省(자치구)의 35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, 해당 지역은 현지의 자원량과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최적의 탄소피크 달성 방안을 제정·시행해야 함.
- 예를 들어, 재생에너지 자원량이 풍부한 특정 도시는 재생에너지 개발·활용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·소비 비중을 높이는 방안 마련
- 재생에너지 자원량이 보통인 도시는 녹색전력 및 GEC 거래 규모를 늘리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
- 산업체가 편중되어 있는 도시나 광산·산림 등 천연자원 채굴·가공 산업을 위주로 하는 도시는 산업구조 최적화를 추진하고, 주요 기업/산업의 에너지효율을 제고 하며, 그리고 청정에너지 개발, 전기화, CCUS 등과 같은 에너지절감·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방안 마련

“중국 탄소제로 산업단지 및 공장 건설 추진”

○ **(탄소제로 산업단지 및 공장 건설)** 탄소제로 산업단지와 공장 건설 정책은 2024년 12월 중앙공산당 경제업무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202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발표¹³⁾

- 탄소제로 산업단지와 공장은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일정 기간(보통 1년) 안에 청정기술, 탄소포집기술, 에너지저장 등의 방법으로 모두 상쇄하여 연간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산업단지와 공장을 의미
- 중국의 산업단지는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이 심각한 대표적인 지역이며,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중국의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40%, 탄소배출량은 중국의 총 탄소배출량에서 31%를 차지함.¹⁴⁾
- 이에 중국은 산업단지를 녹색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순환단지, 저탄소 산업단지, 녹색단지 등의 관련 정책을 마련해왔는데, 앞서 언급한 1차 탄소피크 시범지역 정책에도 10개 단지가 선정되었음.
- 중국 정부는 탄소제로 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단지 내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와 저탄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보조금을 지급하고, 3년간 기업의 소득세 100%, 향후 2년간 50%를 면제하는 세금 우대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할 방침

○ **(에너지전환)** 사막과 황무지 등지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과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, 에너지믹스를 ‘석탄’에서 ‘풍력·태양광’으로 전환하고, 석탄화력발전 현대화(탈탄소)를 추진

-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과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와 초고압(Ultra High Voltage, UHV)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재생에너지 출력 간헐성 문제 해소
- 석탄화력발전소를 기저 부하(Base Load)에서 유연 피크부하 조정용(Flexible Peaking Load)로 전환하는 리트로핏(Retrofit) 사업을 적극 추진

13) 北京日報, 2025.3.13.

14) 潤澄金景雙碳科技, 2024.12.27.

▣ 기후변화 대응: 아젠다로 기후변화대응법 제정 논의

- 중국은 2025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, 글로벌 환경·기후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, 이를 주도할 계획
- 2025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언급되진 않았지만, 2024년 양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후변화대응 아젠다로 ‘기후변화대응법’ 제정이 논의됨.¹⁵⁾
 - 중국은 2009년에 처음으로 기후변화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입법 아젠다에 포함시켰음.
 - 2020년에 ‘2030년 탄소피크·2060년 탄소중립’ 목표를 제시한 이후, 정부는 ‘온실가스 상쇄배출권(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, CCER) 관리 방법’, ‘탄소배출권(Chinese Emission Allowance, CEA) 관리 조례’ 등 관련 법률을 제정
 - 기후변화대응에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믹스 개선, 생태환경 보호 관리, 녹색금융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과 법규로는 모든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없음.
 - 또한, 대기오염방지법과 같은 기존의 환경보호 관련 법률이나 칭장고원 생태 보호법과 같은 지역별 법률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포괄적 내용만 다루고 있어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이 약함.
 - 이에 생태환경법률 체계에서 기본법에 해당되는 ‘기후변화대응법’이 제정되어야 함. 또한, 자연자원보호, 에너지관리, 국토개발, 도농계획 건설 등 법률·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“기후변화대응 아젠다로 기후변화대응법 제정 논의”

3. 평가 및 전망

▣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불확실

- 중국 및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2025년 경제성장률 5% 목표 달성이 전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함.¹⁶⁾
 - 대내적으로는 중국 경제회복 기반이 아직 탄탄하지 않고 유효수요 특히 내수가 부진하며,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.
 - 2024년 9월에 시행했던 경제성장 종합대책을 통해 2024년 경제는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, 2024년 4분기 GDP 디플레이터(Deflator)는 -0.8%에 그쳐 연속 7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함.

15) 中國生物多樣性保護與綠色發展基金會, 2025.3.1.

16) KPMG China, 2025年兩會要點解讀, 2025.3.

-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, 2025년 물가도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, 2025년 1월에 CPI는 전년동월 대비 0.5% 증가하였는데, 2월은 0.7% 감소하여 2025년 1~2월 CPI는 전년동기 대비 0.1% 감소함.¹⁷⁾
- 이러한 물가 흐름은 내수 침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이윤과 투자, 국민 소득 및 소비 등에 영향을 미쳐 내수 회복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음.
-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성장 동력 부족,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다자주의 훼손과 관세장벽 확대, 세계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중국의 수출과 과학기술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음.
- 트럼프 美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관세는 외교 담판의 주요 도구가 되고 있는데, 2025년 3월 기준 미국은 중국에 20%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, 관세정책 발표 주기도 빨라지고 있음.
- 네덜란드 은행인 ING(International Netherlands Groups)는 202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5% 목표 달성은 지난 2년간 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무역흑자가 견인하였는데,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對중국 관세를 크게 인상함에 따라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힘.¹⁸⁾
-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(Moody's)는 관세 인상이 장기화되면 중국의 對미 수출 규모는 1/4에서 1/3로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힘.
- 그러나 중국 '전인대'는 신재생에너지, 과학기술, 군수 등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2025년에도 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이며, 미국의 관세 정책은 내수 활성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함.

“중국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은 전년보다 어려울 전망”

〈 중국의 주요 경제 정책 목표와 실적(2024~2025년) 〉

구분		2023년 (목표치)	2023년 (실적치)	2024년 (목표치)	2024년 (실적치)	2025년 (목표치)
거시 경제	GDP 증가율	약 5.0%	5.4%	약 5.0%	5.0%	약 5.0%
	소비자물가지수	약 3.0%	0.2%	약 3.0%	0.2%	약 2.0%
	국민소득	약 5.0%	6.1%	약 5.0%	5.1%	약 5.0%
취업	신규 고용	1,200만명	1,244만명	1,200만명	1,256만명	1,200만명
	실업률	약 5.5%	5.2%	약 5.5%	5.1%	약 5.5%
재정 정책	재정적자율	3.0%	3.8%	3.0%	3.0%	약 4.0%
	재정적자 규모	3.88조 위안	4.88조 위안	4.06조 위안	4.06조 위안	5.66조 위안

주 : 재정적자율과 재정적자 실적치에는 전입 자금 및 이월 잔액이 포함되지 않음.

자료 : 新華網(2024.3.12.), 政府工作報告(2025.3.5.), 국가통계국, KPMG China 분석 등의 내용 정리

▣ 대외 불확실성 증가 속에서도 탄소중립정책 강화

- 이번 양회에서는 2025년도 탄소배출집약도 감축 목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, 이는 지난 4년간(2021~2024년) 감축률이 8.6%에 불과해서 14차 5개년 계획(2021~2025년) 목표인 18.0%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
17) 澎湃新聞, 2025.3.12.

18) BBC News 中文, 2025.3.5.

“대내외 예상과 달리 중국 정부는 2025년에 탄소피크·탄소중립 정책을 추진을 전년보다 강화하겠다고 발표”

- 또한, 2024년에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증가율이 한때 하락하고 석탄공급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, 대내외 전문가들은 2025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피크·탄소중립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었음.
 -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번 2025년 양회에서도 탄소피크·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.¹⁹⁾
 - 중국 탄소피크·탄소중립학회도 정부의 2025년 탄소피크·탄소중립 정책은 전년보다 강화하였으며, 규제완화 조항은 감소하고 업계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증가했다고 평가함.

참고문헌

에너지경제연구원, 「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」, 제22-6호, 2024.3.28.
 _____, 「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」, 제23-22호, 2023.11.20.
 _____, 「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」, 제25-3호, 2025.2.17.
 최지원·최재희, “중국의 저공 경제(Low-Altitude Economy) 육성 현황 및 시사점”, 「세계경제 포커스」, Vol.7, No.29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24.7.18.
 BBC NEWS, 中國兩會2025看點：經濟增長維持5%左右、發債刺激國內消費、推動人工智能, 2025.3.5.
 经济观察报, 楊偉民：2035年中國GDP總量翻番需解決長期問題, 2023.5.23.
 新華網, 兩會受權發布 | 政府工作報告, 2024.3.12.
 潤澄金景雙碳科技, 中央經濟工作會議首提“零碳園區”, 雙碳戰略下的重點賽道, 2024.12.27.
 國務院, 政府工作報告, 2025.3.5.
 KPMG China, 2025年兩會要點解讀, 2025.3.
 中國能源網, 速覽！政府工作報告中的能源要點, 2025.3.5.
 新浪財經, 解碼2025年經濟預期目標：5%GDP、2%通脹、4%赤字率怎麼看, 2025.3.5.
 中國上市公司網, 2025年全國兩會重要政策梳理解析, 2025.3.10.
 澎湃新聞, 國家統計局公布2025年1-2月份國民經濟數據, 2025.3.12.
 北京日報, 首次寫入政府工作報告!從這個詞裏看發展機遇, 2025.3.13.
 知識分子, 2025年單位GDP能耗下降目標3%, 意味著什麼?, 2025.3.17.
 新浪財經, 2025年兩會後中國經濟運行的新特點與亮點分析, 2025.3.27.
 中國能源網, 全國碳排放權交易市場首度擴圍 新增鋼鐵、水泥、鋁冶煉三行業1500家重點排放單位, 2025.3.27.
 中國石油石化, 2025 中國“雙碳”更強勢, 2025.4.2.
 新浪財經, 鋁冶煉納入碳市場有何影響? 明年碳配額缺口或達34萬噸 企業需盡快降低碳成本, 2025.4.3.

19) 中國石油石化, 2025.4.2.